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

- 단도박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 독 재 활 학 과

중 독 연 구 전 공

이 찬 모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전영민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

- 단도박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social
support with gambling abstinence of pathological gambler
- with emphasis on participants of gamblers anonymous -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독재활학과

중독연구전공

이 찬 모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전영민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

- 단도박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social
support with gambling abstinence of pathological gambler
- with emphasis on participants of gamblers anonymous -

위 논문을 중독재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독재활학과

중독연구전공

이찬모

이찬모의 중독재활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 - 단도박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독재활학과
중독연구 전공
이 찬 모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단도박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성인 남자 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단도박 기간에 따라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n=35$), 단도박 3년 이상 집단($n=33$)의 2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카이검정(χ^2)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 결혼여부가 차이가 있어 이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두고 두 집단간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은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 2개의 척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4개의 하위 척도 중 정서적

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병적 도박, 단도박, 단도박 모임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장 이론적 배경	3
제 1절 병적 도박의 정의	3
1. 병적 도박의 개념	3
2. 병적 도박의 단계	4
제 2절 병적 도박의 심리적 특성	6
1.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병적 도박과의 관계	6
2. 자아 존중감과 병적 도박과의 관계	8
3.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과의 관계	8
제 3절 연구 문제	9
제 3장 연구 방법	11
제 1절 연구 대상	11
제 2절 측정 도구	
1. 도박심각성 척도(K-NODS)	11
2.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12
3. 자아존중감 척도	12
4. 사회적지지 척도	13
제 3절 연구 절차	13
제 4절 자료 분석	13
제 4장 연구 결과	15

제 1절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
제 2절 집단간 심리적 특성 비교	16
1. 집단간 비합리적 도박신념 차이	17
2. 집단간 자아 존중감 차이	17
3. 집단간 사회적지지 차이	18
 제 5장 결 론	20
제 1절 연구결과 논의	20
제 2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21
 [참고 문헌]	23
 [부 록]	26
 ABSTRACT	35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1]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n = 68)	15
[표 2] 집단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	17
-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	
[표 3] 집단간 자아 존중감의 차이	18
[표 4] 집단간 사회적 지지의 차이	19
-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110억을 마늘밭에 묻어 둔 김제 마늘밭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돈을 도박에 송두리째 바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도박관련 합법적 사행산업은 2000년 총 매출액 6조 7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16조 5천억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성인 오락실, 불법 사설 경마/경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사행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여 도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한 도박도 성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도박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써 도박 문제는 사회 여러 계층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합법적 및 비합법적 도박 기회의 확장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적인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과는 달리 많은 금전적 피해가 따라오며,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병적 도박자들은 자살, 불안감, 신체적 불편감, 우울 증상, 무력감, 무능감, 가정 파괴, 직무에서의 부적응, 부적절한 대인관계 그리고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훈, 2005 : 3-5).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들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병적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단도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병적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병적 도박은 완치가 없고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할 병이기 때문에 단도박 유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도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는 단도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병적 도박의 정의

1. 병적 도박의 개념

도박 중독이라고 불리는 병적 도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이며,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질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Custer, 1984 : 35-38)로 1980년에야 뒤늦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II)에 포함되었다.

병적 도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적응적인 도박 행동”으로 정의된다(APA, 1994 : 78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DSM-IV)의 정의에 따르면 병적 도박은 도박에 대한 집착, 금단 증상, 흥분 추구와 내성, 통제 시도 실패, 정서적/성격적 변화, 회피 행동, 단기 추격매수, 거짓말, 불법 행위, 생활 부적응, 재정 파탄 등의 증상과 문제를 수반하는 중독성 질환이자 충동조절 장애로 분류된다. 이러한 병적 도박은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 장애이며 계속 도박에 의존하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행동의 장애이다. 병적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개인적, 직업적 생활과 가족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박을 계속하게 된다(이홍표, 2002 : 7-11).

DSM-IV에서는 병적 도박을 충동조절 장애로 분류하여 강박 장애와 구별하고 있다. 병적 도박이 충동조절 장애로 분류되고 있는 이유는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적 도박자들은 도박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이 증가하며 도박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긴장이 감소하고 쾌락을 얻게 된다. 특히 도박 행동을 자아 동질적인 것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은 강박 장애와 구분된다. 강박적인 행위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지각되고 심리적 고통을 없애고자 하

는 희망 하에서 수행하는 반면, 대부분의 병적 도박자들은 반복적인 도박 행동이나 도박에 대한 집착을 자아 동질적인 것으로 기술한다(Black & Moyer, 1998 : 1434-1439).

병적 도박자들은 강박 장애와 달리 과도한 도박으로 인해 가정 파탄, 직업 상실, 부채, 불법 행위 등의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더구나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자체도 처음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도박은 쾌락 추구적이며 최소한 쾌락을 얻고자 하는 바램에서 수행된다(이홍표, 2002 : 7-11).

DSM-IV에서는 병적 도박을 다른 충동조절 장애와 달리 “병적 (pathological)”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충동에 저항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박을 한다는 것,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만을 가지고 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병적 도박은 충동에 저항하는 데 실패한다는 단서가 붙은 다른 충동조절 장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보다 도박 행동의 부적응적 특성이 병적 도박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며 이러한 부적응적인 본성이 나타날 때 비로써 병적 도박으로 장애(disorder)로 정의하게 된다(Winchel, Yovell, & Simeon, 1997 : 1249-1270).

병적 도박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합병증을 수반한다. 병적 도박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50%가 주요 우울 장애의 삽화를 동반하며(이홍표, 2001 : 281-295), 8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Lorenz & Yaffee, 1986 : 40-49).

2. 병적 도박의 단계

병적 도박의 단계나 심각 정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개념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각기 다른 이름들이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도박의 심각 정도나 도박에 개입된 정도에 따라 도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박자들은 유희성 도박 혹은 사교성 도박에서 문제성 도박 혹은 습관성 도박으로 그리고 최종적 단계인 병적 도박 혹은 강박적 도박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교성 도박,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의 세 단계로 심각 정도를 구분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Shaffer, Hall, & Bilt, 1998 : 1369-1376).

사교성 도박이란 제한된 시간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액을 미리 정해 놓고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를 말한다(APA, 1994 : 793-797). 사교성 도박은 즐거움이나 여흥 또는 사교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따든 잃든 간에 언제든지 도박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이나 문제성 도박과는 다르다. 사교성 도박은 병적 도박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교성 도박자들은 병적 도박자들과는 달리 이기고 지는 것에 가치를 걸지 않는다. 도박보다 다른 삶의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보상적이라는 가치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박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사교성 도박자는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Custer, 1984 : 35-38).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을 구분하는 표준적인 정의는 거의 없으나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제성 도박은 가족, 사회생활, 직업 기능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수준의 도박 행동을 가리킨다. 반면에 약물 남용과 유사한 강박성과 중독성이 포함되며 DSM-IV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의학적 질환으로 진정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도박 행동은 병적 도박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제성 도박은 첫째 개인적 생활, 가족, 직업과 관련된 행위를 손상시키거나 붕괴시키는 도박 행동으로 정의된다.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교성 도박과 병적 도박 사이의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도박 행동을 지칭하는 데 문제성 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적 도박보다 심각 정도가 낮으면서 사교성 도박이 아닌 수준을 통칭하여 문제성 도박이라고 부른다. 문제성 도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DSM-IV의 병적 도박 진단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단기 추격 매수와 통제력의 상실 등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APA, 1994 : 793-797). 따라서 문제성 도박이란 가벼운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 이르는 문제를 유발하는 도박 행동을 말하며 병적 도박에 포함되는 금단 증상이나 내성과 같은 심각한 중독 고유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이홍표, 2002 : 7-11).

가장 심각한 형태의 도박 문제를 병적 도박이라고 부른다. Custer에 의하면 병적 도박이란 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도박 충동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는 중독성 질환이다. 충동의 강도와 절박함이 계속되고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정서적/재정적 자원을 도박 행위에 소비하게 된다. 결국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식하고 때로는 파괴하게 된다. 병적 도박은 가장 심각한 부적응적 도박 행동이며 충동 통제 장애로 그 행위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이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구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흥분이나 긴장감이 증가하지만 행위를 한 이후에는 후회, 자책, 죄책감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병적 도박은 개인적 역량과 가족 기능, 직업 역량을 파괴시키는 지속적이고 부적응적인 도박 행동이다(APA, 1994 : 793-797).

병적 도박은 사교성 도박이나 전문 도박자 등과는 구별되는 질병의 개념으로써, 도박으로 인해 개인, 가족 및 직업 기능에 심각한 휴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충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중독의 일종이다. 그러나 다른 중독과 다른 점은 다른 중독은 서서히 진행되며 문제가 되는 징후들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병적 도박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 2절 병적 도박의 심리적 특성

1. 병적 도박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사람들은 흔히 게임의 실제 보상과 위험성을 잘못 계산하며 위험도와 보상의 크기를 어떻게 자주 베팅을 하는가 하는 개입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도박 산업은 이러한 보상 수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 위험의 과소 평가, 도박에 지출한 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경향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

인지적 오류는 빈번하고 규칙적인 도박, 계속된 손해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Ladouceur & Walker, 1996 : 89-120). 도박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적 오류는 무선성에 대한 잘못된 지각에 있다(Ladouceur, Sylvain, Letarte, Giroux & Jacques, 1998 : 1111-1119). 무선성이란 모든 사건이 독립적이며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자들은 각 시행이 독립적이라는 무선성 개념을 무시한 채 도박판에 일정한 질서나 규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유추한다. 도박판의 결과가 무선 작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결과에 따라 다음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Ladouceur & Walker, 1996 : 89-120). 도박자의 오류나 잘못된 지각은 통제력 착각의 기반이 된다. 통제력의 착각이란 도박에 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을 숙력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말한다(Langer, 1975 : 311-328). Langer는 도박을 하면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합리적 사고가 유발되거나 발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선택과 같은 자리결정 요인, 과제에 대한 친숙성, 능동적 관여, 경쟁 등의 요소가 통제력의 착각을 촉진시켜 더 많은 돈을 걸게 하고 도박에 깊이 관여하게 한다(Langer, 1975 : 311-328). 과제 초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기 확신이 증가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더 많이 회상하며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 예측한다(Langer & Roth, 1975 : 951-955).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는 통제력의 착각을 촉진시킨다(Friendland, Keinan & Regev, 1992 : 923-931).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병적 도박자들도 도박을 시작한 초기에 큰 돈을 딴 경험이 있으며(Ladouceur & Mayland, 1984 : 169-175). 손실이 누적될수록 초기의 강화 경험을 더 자주 회상하면서 행운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인지적 기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적어도 도박할 것을 기대하거나 도박 행위에 참여할 때마다 도박 단서에 노출될 때마다 촉발된다. 인지적 기대는 주어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사고(Jaffe & Lohse, 1991 : 9-12),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 언어화 또는 사고

로 정의된다(Griffith, 1994 : 351-379). 이렇게 도박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에는 통제력의 착각, 특정한 행동이 승리 기회를 증가시키리라는 미신적 신념, 도박자의 오류, 편향적 평가 등의 다양한 인지적 오류들이 포함된다.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교성 도박자들도 인지적 오류를 보일 수 있지만 병적 도박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 도박에 대한 기술 지향적인 태도와 결과가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이 강하다(Toneratto, 1999 : 1593-1604).

2. 병적 도박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되는 유지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며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 Rosenberg는 자아 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병적 도박과도 관련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박에 쉽게 그리고 깊이 개입될 위험성이 높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도박을 접하기 이전부터 낮은 자존심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이 많다(Ladouceur & Walker, 1996 : 89-120).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박이 힘을 불어넣고 기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활동으로 지각된다. 도박은 일시적으로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경감시켜 주며 자신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소망 충족적인 환상과 기대로 높은 자존감으로 증폭시킨다(이흥표, 2002 : 7-11). 또한 도박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도박 행위 과정에서 자존감이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과도한 도박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며 가족 관계를 붕괴시키며 명예와 신의를 실추시킨다(Custer, 1984 : 35-38).

3. 병적 도박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 99-125). 사회적 지지는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는 동시에 스트레스 예방과 대처

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등 적응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받는 사람들은 증진된 건강과 복지를 즐긴다고 하였다 (Cohen & Wills, 1985 : 310-35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병적 도박과도 관련이 있다. 도박자들은 도박이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이흥표, 2004 : 555-568), 이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인해 도박에 빠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 3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단도박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단도박 모임(이하 GA)이란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으로써 도박으로부터 생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과 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한국단도박 모임, 2010 개정판 : 6-7). GA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사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도박 중독자들의 공통 문제에 대한 공감과 협력이 탁월하고 단도박과 회복이라는 공동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자조적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GA협심자 중 단도박 기간에 따라 단도박 6개월 미만,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심리적 특성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병적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인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과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설 1.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에 비해 비합리적 도박 신념(기술과대 평가적 추론,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에 비해 사회적지지(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높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단도박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표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단도박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K-NODS가 5점 미만인 1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101명 중 연구 효과를 명확히 보기 위해 총 68명(단도박 6개월 미만 35명, 단도박 3년 이상 33명)만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2절 측정 도구

1.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소득, 종교, 도박 종류, 도박 기간, 단도박 기간, GA참석 횟수, 부채해결 방법 등의 요인을 포함한 설문지로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2. 도박 심각성 척도 : K-NODS

도박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NODS(NORC DSM-IV Screen for Gambling Problems, 1999)를 변안한 K-NODS(김교현, 2003)를 사용하였다. K-NODS는 도박 문제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범국가적 조사를 위해 DSM-IV의 진단 준거를 면접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생에 걸친 도박 문제를 조사하는 L(Lifetime)형과 지난 1년 사이의 도박 문제를 조사하는 P(Past year)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형을 사용하였으며, 병적 도박의 절단점은 5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GRIB)

비합리적 도박 신념은 도박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통제력 착각,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 등)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enbergh, Meyers, May와 Whelan(1998)의 Gambling Related Irrational Beliefs를 이흥표(2002)가 30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그 심리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하위 요인은 ‘자기과신적-비논리적 추론’ 요인과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 및 .93으로 나타났다. 자기 과신적, 비논리적 추론 요인은 자신의 도박 능력과 도박판에서의 승리를 실제 가능한 것보다 지나치게 과신하고 도박 과정과 결과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잘못 추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 요인은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고 운보다 전략 및 기술의 작용을 과대 평가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 및 .96으로 나타났다.

4. 자아 존중감 척도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되는 유지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며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최정아(1965)가 번역한 것을 2002년 양현정이 자신의 논문에서 활용한 것을 인용하였다. 기존에 질문을 바탕으로 문장의 수정을 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긍정적 문항은 총 6문항으로 1, 2, 4, 6, 7, 8번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5문항 3, 5, 9, 10, 11번 문항은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묻는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채점은 부정적 자아 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응답을 역산한 후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mond와 Jones(1983)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고 표준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6문항),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7문항), 일을 대신 해 주거나, 필요시 돈, 물건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5문항),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6문항)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박지원이 산출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제 3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3월 14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9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단도박 모임에 참석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총 105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K-NODS 5점 미만 1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101명 중 연구 효과를 명확히 보기 위해 총 68명(단도박 6개월 미만 35명, 단도박 3년 이상 33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4절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에 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의 교차분석 결과 나이, 결혼여부에 따라 단도박 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두고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단도박 모임 참여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K-NODS 점수가 5점 미만인 1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101명 중 68명(단도박 6개월 미만 35명, 단도박 3년 이상 33명)을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연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n=68)

구 분		단도박 6개월 미만		단도박 3년 이상		x ²
		인원 수	백분율	인원 수	백분율	
연령	20대	3	8.6%	0	0.0%	17.821**
	30대	13	37.1%	1	3.0%	
	40대	9	25.7%	10	30.3%	
	50대	8	22.9%	17	51.5%	
	60대 이상	2	5.7%	5	15.2%	
	계	35	100.0%	33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1	2.9%	0	0.0%	2.291
	중학교 졸업	1	2.9%	1	3.0%	
	고등학교 졸업	9	25.7%	13	39.4%	
	대학교 졸업	21	60.0%	17	51.5%	
	대학원 졸업	3	8.6%	2	6.1%	
	계	35	100.0%	33	100.0%	
직업	무직	9	25.7%	1	3.0%	9.882
	일반 사무직	7	20.0%	9	27.3%	
	자영업	11	31.4%	15	45.5%	
	교사, 공무원	1	2.9%	4	12.1%	
	판매, 서비스	4	11.4%	2	6.1%	
	단순 노무직	3	8.6%	2	6.1%	
	계	35	100.0%	33	100.0%	

* p < .05, ** p < .01, *** p < .001

구분		단도박 6개월 미만		단도박 3년 이상		x ²
		인원 수	백분율	인원 수	백분율	
결혼 여부	미혼	10	28.6%	1	3.0%	11.315**
	기혼	19	54.3%	30	91.0%	
	이혼	6	17.1%	1	3.0%	
	법적 이혼	0	0.0%	1	3.0%	
	계	35	100.0%	33	100.0%	
월 소득	없음	7	20.0%	0	0.0%	8.626
	100만원미만	2	5.7%	1	3.0%	
	100~200만원	6	17.1%	7	21.2%	
	200~300만원	6	17.1%	9	27.3%	
	300~400만원	8	22.9%	8	24.2%	
	400~500만원	2	5.7%	4	12.1%	
	500만원이상	4	11.4%	4	12.1%	
	계	35	100.0%	33	100.0%	
도박 종류	화투,포커	9	25.7%	24	72.7%	
	경마,경륜	6	17.1%	6	18.2%	
	카지노	12	34.3%	3	9.1%	
	스포츠 토토	4	11.4%	0	0.0%	
	인터넷 도박	4	11.4%	0	0.0%	
	계	35	100.0%	33	100.0%	
단도박 기간		2개월		103개월(8년 7개월)		
연령		42.6		52.0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 의하면 평균 단도박 기간은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은 2개월,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은 8년 7개월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은 42.6세,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은 52.0세로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두 집단 모두 대졸 이상이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종류는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은 카지노,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의 비중이 높았으며,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은 화투, 포커 및

경마, 경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 2절 집단 간 심리적 특성 비교

1. 집단 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는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의 2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위 척도별로 나누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연령, 결혼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이들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은 회귀 동등성 가정을 위반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보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집단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	단도박 6개월 미만	26.46	6.836	0.711
	단도박 3년 이상	22.79	8.480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	단도박 6개월 미만	45.71	14.999	1.853
	단도박 3년 이상	42.39	16.707	

* $p < .05$, ** $p < .01$, *** $p < .001$

2. 집단 간 자아 존중감의 차이

단도박 기간과 자아 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연령, 결혼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이들 변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자아 존중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 존중감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032$, $p < .05$). 따라서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 이상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간 자아 존중감의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자아 존중감	단도박 6개월 미만	33.26	5.705	2.032*
	단도박 3년 이상	36.48	4.861	

* $p < .05$, ** $p < .01$, *** $p < .001$

3. 집단 간 사회적 지지의 차이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위 척도별로 나누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연령, 결혼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이들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4개의 하위 척도 중 정서적 지지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평가적 지지/정보적 지지/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도박 3년 이상 집단이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일부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는 < 표 4 >와 같다.

[표 4] 집단간 사회적 지지의 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정서적 지지	단도박 6개월 미만	24.40	5.226	2.725**
	단도박 3년 이상	25.12	4.702	
평가적 지지	단도박 6개월 미만	20.97	4.204	1.647
	단도박 3년 이상	21.30	3.522	
정보적 지지	단도박 6개월 미만	20.80	4.071	1.192
	단도박 3년 이상	21.64	3.522	
물질적 지지	단도박 6개월 미만	15.94	3.694	0.673
	단도박 3년 이상	15.52	3.261	

* $p < .05$, ** $p < .01$, *** $p < .001$



제 4 장 결 론

제 1절 결과 논의

본 연구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GA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단도박 6개월 미만 집단($n=35$)과 단도박 3년 이상 집단($n=33$)의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카이검정(χ^2)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 결혼여부가 차이가 있어 이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두고 두 집단 간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에서는 두 집단의 비합리적 도박 신념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하위 척도인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과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기술과대 평가적 추론과 자기과신-비논리적 추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단도박 기간이 오래 되어도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도박 모임 협심자 중 오랫동안 단도박을 유지하던 병적 도박자가 재발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위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도박 모임 협심자들은 인지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단도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 남아 있어 항상 재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치료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한 인지 치료를 반드시 실시하여 비합리적 도박 신념을 줄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2에서는 두 집단의 자아 존중감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아 존중감이 병적 도박

자가 단도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치료에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병적 도박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3에서는 두 집단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하위 척도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서적 지지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있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도박중독 관련 상담센터에서 부채 대리변제 등 물질적 지원을 하는 대신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표집에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68명)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에 있는 GA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바람직한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횡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여 어떠한 요인이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병적 도박의 원인으로 밝혀진 많은 요인 중 비합리적 도박신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설문지 구성 및 설문 시간에 제한이 있어 기존 연구에서 병적 도박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우울, 불안, 충동성, 대처 방식, 도박 열정 등 많은 요인을 알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3가지 요인

외에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병적 도박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과 관계가 있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단도박을 오래 한 병적 도박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병적 도박자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단도박과 관계있는 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병적 도박자의 심리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HANSUNG
UNIVERSITY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교현, 2003, '병적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및 예측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8(2), 한국심리학회, 261-277".
- 김교현, 2003, '병적 도박 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3), 한국심리학회, 487-509".
- 김민우, 2004, '문제 도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영훈, 2005,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정연, 2005, '병적 도박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현주, 2009, '청소년 도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손소미, 2010, '비합리적 도박신념, 의사결정 능력의 결합 및 도박 문제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양국희, 2012, '비합리적 도박신념 및 타인에 대한 승리 정보가 도박 행동에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지, 2010,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영, 2009, '여성의 자아 존중감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인혜, 2004, '카지노 게임 선호유형, 성별, 도박 심각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 :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2), 한국심리학회, 351-378”.

이흥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 동기 및 위험 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흥표, 2002,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이흥표, 2003,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병적 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2(2), 한국심리학회, 415-434”.

이흥표, 2004, ‘5요인 도박 동기의 검증과 도박 동기가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9(3), 한국심리학회, 555-568”.



2. 국외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rd ed, Washington, D. C. : US APA.
- Black, D. W., and T. Moyer, 1998, 'Clinical features and psychiatric comorbidity of subjects with pathological gambling behavior', *"Psychiatric Service"*, 49(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434-1439.
-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10-357.
- Cohen. S., and H.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Bellwether Publishing, 99-125.
- Custer, R. L., 1984, 'Profile of the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ic"*, 45,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5-38.
- Friendland. N., and G. Keinan, and Y. Regev, 1992, 'Controlling the uncontrollable : Effects of stress on the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23-931.
- Griffith, M., 1994, 'The role of cognitive bias and skill in fruit machine gambl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5,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51-379.
- Jaffe, A., and C. Lohse, 1991, 'Expectation regarding cocaine use : Implication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ddiction and Recovery"*,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12.
- Ladouceur, R., and M. Mayland, 1984, 'Evaluating of the illusion of control : Type of feedback, outcome of sequence and number of trials among occasional and regular players', *"Journal of Psychology"*, 12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9-175.
- Ladouceur, R., and R. Walker,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M Salkovskis(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pp, 89-120), NY : John Wiley & Sons Ltd.
- Ladouceur, R., and C. Sylvain, and H. Letarte, and I. Giroux, and C. Jacques, 1998, 'Cognitive treatment of pathological gambl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Elsevier Ltd, 1111-1119.
- Langer, E. J., and J. Roth,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11-328.
- Lorenz, V. C., and R. A. Yaffee, 1986, 'Pathological Gambling : Psychosomatic, Emotional and marital difficulties as reported by gambler',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49, Springer US, 40-49.
- Shaffer. H. J., and M. N. Hall, and J. V. Bilt, 1998,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gambl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A research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369-1376.
- Toneratto, T., 1999, 'Cognitive psycho-pathology of problem gambling', *"Substance Use and Misuse"*, Blackwell Publishing, 34, 1593-1604.
- Winchel, R. M., and Y. Yovell, and D. Simeon, 1997, *"Impulse control disorder, In A Tasman, J. A, Lieberman(Ed), Psychiatry(pp, 1249-1270)"*, Philadelphia, Pennsylvania : W. B. Saunders Company.

【부 록】

연구에 사용된 척도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2. 귀하의 나이는 ? 만 ()
3. 귀하의 학력은 ?
① 무 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 무 직 ② 학 생 ③ 자영업(사업) ④ 일반 사무직 ⑤ 교사/공무원
⑥ 판매/서비스 ⑦ 단순 노무직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 혼 ② 기 혼 ③ 이 혼 ④ 별 거 ⑤ 법적 이혼(결혼생활유지) ⑥ 사 별
6. 귀하의 자녀 수는 ? () 명
7. 귀하의 월 소득은 ?
① 없 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300~400만원
⑥ 400~500만원 ⑦ 500만원 이상
8. 귀하의 종교는 ?
① 없 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 교 ⑤ 기 타 ()

다음은 도박/GA관련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했던 도박의 종류는?(여러 가지이면 가장 많이 했던 1가지만 체크)

- ① 화투 ② 포커 ③ 바둑 ④ 경마 ⑤ 경륜 ⑥ 경정 ⑦ 카지노 ⑧ 스포츠 토토
⑨ 인터넷 도박 ⑩ 당구 ⑪ 주식 ⑫ 전자 도박 ⑬ 기타 ()

2. 귀하가 도박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후

3. 귀하가 GA에 참여한 총 기간은 ? ()년 ()개월

→ 처음 참석 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 귀하의 현재 단도박 기간은 ? ()년 ()개월

5. GA참석 이후 재발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6. 귀하는 GA모임을 월 몇 회 참석하고 있습니까 ?

- ① 없다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7. 귀하는 GA참석 이후 부채를 어떻게 변제하였거나 또는 변제하고 있습니까?

- ① 본인이 변제 완료 ② 가족(부모,형제,배우자)의 도움으로 변제
③ 현재 변제 중 ④ 변제하고 있지 않음

[K-NODS] 다음은 과거 도박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되면 “예”에 체크하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오”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니 오
1. 과거 도박 경험을 생각하거나 장차 하려는 도박 계획에 몰두하면서 2주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2.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들에 대해 몰두하면서 2주나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3. 도박에서 종전과 같은 흥분과 스릴을 느끼기 위해 도박에 거는 돈의 액수를 늘리거나 배팅을 더 크게 하여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4. 도박을 그만 두거나, 줄이거나 또는 조절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4번의 답이 “아니오”이면 8번으로 건너뛰십시오.)		
5. 도박을 그만두거나, 줄이거나 또는 조절하려고 시도했을 때 초조하거나 불안한 적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있었다.		
6. 도박을 그만두거나, 줄이거나 또는 조절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번의 답이 “아니오”이면 8번으로 건너뛰십시오.)		
7. 도박을 그만두거나, 줄이거나 또는 조절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3번이나 그 이상이 된다.		
8.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도피하는 한 방법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다.		
9. 죄책감이나 불안, 무력감 혹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 도박을 한 적이 있다.		
10. 어느 날 도박에서 돈을 잃었을 때 다른 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을 한 적이 있다.		
11.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 도박을 했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11번의 답이 “아니오”이면 13번으로 건너뛰십시오.)		
12. 11번의 거짓말을 한 적이 3번이나 그 이상이 된다.		
13. 도박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급전을 빌려 쓴 적이 있다.		
14. 도박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 누군가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를 가졌던 적이 있다.		
15. 도박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16. 도박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직업적인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		
17.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처하게 된 절망적인 재정적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다음은 도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박관에서 이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2. 도박을 할 때 결과는 나의 판단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					
3. 도박은 해 볼 만한 도전이다.					
4. 베팅할 때 하는 특별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					
5. 이전에 이겼던 경우는 게임을 잘 분석하고 추리했기 때문이다.					
6. 도박에서 여러 번 지면 다음 게임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7. 도박을 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행운이 따르는’ 기술이 있다.					
8. 적게 자주 돈을 따는 것보다는 몇 번 크게 따는 것이 훨씬 낫다.					
9. 결국에는 돈을 잃기보다는 따게 될 것이다.					
10. 도박할 때 ‘승부처(이 때다 싶은 시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11. 도박으로 돈을 잃고 피해를 입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길 것이고 잃은 돈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도박에서 이기거나 돈을 딴 것은 내 기술이 좋았거나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3. 지금까지 잃었으므로 앞으로 돈을 딸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진다.					
14. 조금만 더 잘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이겼을 텐데 하는 아까운 경우가 있다.					
15. 도박을 계속하면 결국은 돈을 따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6. 지금은 돈을 잃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들이 눈에 보인다.					
17. 지난 게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게임을 예측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다.					
19. 이전에 이겨서 돈을 딴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어떻게 베팅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20. (도박에서)이긴 다음에 “이길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하고 생각한다.					
21. 지금까지 돈을 잃은 것은 도박을 배우거나 이기기 위한 투자이다.					
22. 최근에 돈을 따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거는 횟수나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23. 지금 돈을 잃고 있다고 해도 금방 이겨서 되찾을 수 있다.					
24. 다 이긴 게임을 아슬아슬하게 놓쳤던 적이나 거의 이길 뻔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게임을 계속하면 이길 것이다.					
25. 나는 도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언젠가는) 이길 것이 분명하다.					
26. 지금까지 돈을 잃은 것은 도박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					
28. 몇 번 크게 딴 적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다시 크게 돈을 딸 것이다.					
29. 지금은 돈을 잃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할 것이다.					
30.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u>[자아 존중감 척도]</u>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적어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많은 장점과 성품을 가졌다고 느낀다.					
3.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낀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좋은) 태도를 느낀다.					
7. 나는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나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					
9. 나는 확실히 무기력해지는 것을 때때로 느끼곤 한다.					
10. 나는 내가 가끔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1. 나는 내가 가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지지 척도] 다음은 당신이 주위 사람들(가족, 동료 등)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2.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4.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6. 내가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7.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8.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생각한다.					
9. 내가 그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한다.					
11.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생각한다.					
12.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3.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다고 생각한다.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15.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고 생각한다.					
18.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20.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21.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22.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들(물건이나 생활공간)을 빌려줄 것이다.					

23.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 주고 응해 줄 것이다.					
24.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을 해 줄 것이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nd gambling abstinence of
pathological gambler

- with emphasis on participants of gamblers anonymous -

Lee, Chan-Mo

Major in Addiction Studies

Dep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quitting gambling of pathological gambler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68 adult male participants who regularly attended gamblers anonymous in Seoul and Kyong-gi areas. They were divided into 2 groups depending on how long they had stopped gambling: a group for less than 6 months (n=35) and a group for more than 3 years (n=3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observ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with chi-square test, ages and marital status varied. Putting these

variables as covariates, ANCOVA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between the two grou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rrational gambling belief did not show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both criteria, technique overestimating inference and overconfidence-illogical inference but self-esteem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Social suppor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only in emotional support among four sub-criteria, but did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 in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Lastly, the limit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rther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irrational gambling belief, self-esteem, social support, pathological gambling, gambling , gamblers anonymous

